

나의 문학과 지난 60년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오에 겐자부로입니다. 제가 나오길 기대하고 박수를 치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제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논문을 읽은 적도, 제 강연을 들었던 경험도 전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제 소설은 까다롭고 논문은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며 강연 또한 재미가 없다는 평판이 자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큼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 다음은 그다지 재미있지 않을 것이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바로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 * *

사실 저는 이메일(E-mail) 주소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장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더니 “당신은 휴머니스트이니까. 문과 계열이니까.”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딸은 이과 계열이고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리로 오기 전 전화를 했더니, 고려대학교의 학생이자 도쿄(東京)의 조치(上智)대학 시절 친구였던 분이 어제 캠퍼스에 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네 아버지 사진이 걸려있더라고 제 딸에게 말해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딸이 “아주 근사한 안경을 끼고 있었지?”라고 물었더니, “아니, 안경 쓴 모습이 아니라, 어쩐지 우울해 보이는 낙타 같은 사진이었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째서 그런 낙타 같은 사진이 걸려있는지, 역시 한국의 대

일감정은 좋지 못한 건지, 그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제 아내에게 한국에 가서 고려대학교라는 아주 큰 대학의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매우 의상스러운 생각을 곧잘 하는 제 아내가 멋진 사진을 보내자며 사진을 찍어주겠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매우 특별한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걸치고 있는 이 안경이 아닙니다. 그 안경은 배용준 씨가 로케이션에서 사용했던 안경입니다. 일본의 안경 회사가 배용준 씨에게 PR 협력으로 안경을 드렸고 사용 후 다시 돌려받은 안경입니다. 그것을 안경 렌즈만을 교환하여 돋보기로 만들어 제게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배용준 씨의 안경을 걸치고-돋보기이긴 합니다만-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배 겐자부로라고 할까요? 그 안경을 걸친 옆모습을 아내가 사진으로 찍어 고려대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는 그 낙타 같은 사진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재미있지 않은 내용이니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6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강연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어윤대 총장님, 그리고 조광 문과대학 학장님과 대화의 기회를 가졌는데 정말이지 재미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세계적으로도 평판이 높아서 문과도 우수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이과대학은 세계의 200개 최우수 대학이라는 리스트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는 세계 있어 약간 곤란합니다. 이과 계열의 대학에서는 강연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깐요. 제가 문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아니 2년 전이었을까요? 도쿄대학 졸업식에서 제가 졸업생에게 강연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대학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전 중의 강연은 다른 사람이 하게 되었고 제 강연은 오후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가보니 오전 중에는 이과대학 졸업식이 있어 스웨덴 캐롤린스카 대학의 선생님이 강연을 맡게 되었고, 오후에는 문과대학 졸업식으로 제가 강연하는 식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과 계열 학생이 문과 계열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20분의 강연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끌어 문과대 학생들까지 맥이 빠지게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학장 선생님께 이 대학은 이과로 유명하지만 문과의 휴머니즘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침에 찬성합니다. 저는 대학 초년에 휴머니즘, 인문학, 철학, 어학도 공부하는 것이 장래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대학에서 전문분야를 학습하여 전문가가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술, 능력, 기능을 획득하여 졸업한 후 사회의 구성원이 됩시다만 그러한 사회에 모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혹은 국제관계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같은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유연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깊이 사고하고 사회적 책임,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가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기업가나 학자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 시민이 모여 대화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때 다양한 학문을 거쳤을 테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인 일반 시민으로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할로 모여 정치를 생각하고 국제관계를 생각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장래, 사회라는 대상을 건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심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유익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라는 문화론, 문학론으로 저명한 학자가 있습니다만 3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를 추도하기 위한 집회를 도쿄에서 조직했는데, 1200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쿄의 '사이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특히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글로 써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서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 *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조광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본교는 100년 전—현재로서는 101년 전—조국에 존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교육구국을 원하는 전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설립된 이래 민족대

학으로서 지나긴 도정을 걸어왔습니다.”라고 씩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자 일본인인 저로서는 가슴을 찢른다고 할까? 매우 괴로운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잊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역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군사력이나 마스크 등 다양한 압력의 유도에 의하여 왜곡되어 가는 역사의 기억이라는 것을 항상 정확하게 남겨 보존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인간으로서 이야기하자면 101년 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입니다. 군국주의, 제국주의 하의 일본이 한국병합을 단행한 것은 일본인에게도 근대사의 중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민족에 있어서는 매우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 지배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국제관계라든가 내정에 직접 간섭하기 시작한 것은 1904년의 일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간섭은 있었겠지만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장악하게 된 것은 1904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의 1905년,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자, 국민을 구하자는 생각으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불요불굴이라고 할까? 정말이지 인간다운, 사나이다운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후 바로 대학이 쉽게 발전할 만한 황금시대가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1904년에서부터 1910년의 한국병합 조약이 조인되기까지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학은 설립 이후 계속 점차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자신들의 손으로 대학을 충실화하고자 하는 태도가 일관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조국이 존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교육구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라는 것은 실로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문과대학 학장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나날을 거쳐 현재 여러분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 * *

한편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의 나라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였지만 그것을 느꼈고, 그때 어른들이

교육이라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1945년 8월 이후 5년간 정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1945년은 여러분에게 있어 조국이 해방된 해이고 제게 있어서는 근대화 시작 이래 올바르다고 할 수 없는, 아무리 과거를 돌이켜보더라도 우리들이 범죄를 행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근대화의 뒤틀린 역사를 거친 결과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여 멸망의 위기가 닥쳐왔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라빈드라나드 타고르(*Rabindranāth Tagore*)라는 인도의 시인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대시인입니다만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 타고르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1867년 이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으로 인한 일본의 근대화에는 훌륭한 점이 있다고 타고르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이 점차 군비(軍備)를 강조하면서 무력을 길러나가는 모습이 그의 눈에 비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 쓴 편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전통을 존경하며 애정을 품고 있다. 하지만 그런 나라라고 해도 군비라는 것에 힘을 쏟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혼(soul), 인간의 혼이 쇠약해져,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른 나라들보다도 그 나라 자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일본인들의 귀에도 전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당시 일본인들은 반성하지 않았고 드디어 국가가 패망하는 날이 왔습니다.

* * *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물론 중학교조차도 갈 수 없는 고등학교 따위는 꿈처럼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집은 숲에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으므로 저도 그 일을 하고자 생각하여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식물도감으로 공부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린네의 학명이 붙어있었지요. 매화, 벚나무 등 일본에 유래하는 식물을 의미하는 ‘japonica’가 달린 학명이 많았는데, 특히 시코쿠(四国)에 많은 닳나무 등 종이 원료가 되는 나무들에는 대체로 ‘japonica’가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암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두들 “오에 씨 닳 셋째는 외국어를 한다.”며, 무슨 말에든 전부 외국어로 대응할 수 있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8월

15일 전쟁이 끝나고 그 이틀 후인 17일, 그때까지 미국은 적국이고 죽창이라도 만들어 싸워야 한다고 들으며 자라났는데 그런 미국의 병사 15명이 지프를 타고 우리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무소에 미국 병사들의 지프가 도착했습니다. 통역이 딸려 있어야 했지만 전날 옆 마을에서 열린 연회에서 술을 지나치게 마셔 지프에 탈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걸어서 우리 마을로 향하고 있으므로 통역이 도착할 때까지 2~3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에 닥 꼬마는 항상 외국어 책을 읽고 있고 마을 나무의 이름도 전부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제가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깔끔한 옷을 입혀주셔서 와이셔츠같은 것을 입고 갔습니다. 펙 상냥한 금발의 미국인이 제게 뭐라고 이야기를 걸었지만 저는 영어를 전혀 몰랐으므로, 그곳에 있었던 대나무를 가리키며 “뱀부(bamboo)”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병사도 “bamboo”라고 하더군요. “이게, 대나무”라고 하니 “대나무”라고 따라 외우면서 말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저를 그다지 높이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꼬마가 “bamboo”라고 말했다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제가 나무의 이름을 식물도감에서 익힌 라틴어로 이야기하자 그 사람은 매우 존경스럽다는 표정을 지었고, 통역은 마친 셈이었으니 제가 돌아가려 하자 “Good bye, sir.”라고 인사하더군요. 미국인에게 “Good bye, sir.”라는 말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을로 말하자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놀려댑니다. 하루 이틀간은 제가 진주군(進駐軍)에게 라틴어로 이야기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이후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진실을 퍼뜨렸기 때문에 “뱀부”라는 별명이 붙어서, 오에 뱀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 * *

전쟁이 끝난 후 매일처럼 정전이 되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비가 내리면 이틀이건 사흘이건 그런 날이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밤이 되면 칠혹 같이 어두워지므로 어른들은 집에서 나와 현도(県道)라는, 현에서 가장 큰 길에서 땀감—홍수 때문에 강으로 밀려 내려와 쌓인 나무들—을 모아 와서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려나, 하는 대화가 오가고 우리들은 곁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 가령 중국에 종군했던 사람은 전장에서 사람을 살해한 것에 대하여 솔직히 이야기하고 모두들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말에 동의하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언가 삼가는 듯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현재 엉망이 되었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토록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교육에 관한 법률인 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근거가 된 것이 아시다시피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입니다. 헌법이 만들어졌고 헌법에 따라 평화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그에 따라 시행되게 되어 우리 마을에도 신제(新制) 중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이들 중 기껏해야 한두 명이 옆 마을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우리 마을에 40명 정원의 중학교가 옆 마을에는 신제 고교가 설립되면서 가난한 집 아이라도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행하자, 우리들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자던 마음이 그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뒤덮었다고 생각합니다.

* * *

어른들이 심각하게 숙고하는 가운데 제 생각은 어떠했는가 하면 공부를 해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미국 병사에게 약간의 단어가 통했던 것처럼 외국어를 공부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갇혀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외국인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신문에서도 보았습니다. 고작 12, 3세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마을에 틀어박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지향하며 살아가자는 결심을 스스로 굳혔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작은 마을에서 200년이나 살아왔습니다. 200년이나 버티며 큰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벌고 조금씩 조금씩 쓰는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집안이었으니 할아버지의 묘도 증조할아버지의 묘도 전부 마을 안에 있었고 우리도 곁에 묻히게 될 것이었지만, 저는 외부로 나가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집 앞에 길이 있는 이상, 그

길을 걸어가면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 바다가 나타나면 배를 타고 또 다시 육지에 이르러 계속 나아가서 스페인 부근에까지 가볼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무렵의 저는 꽤나 태평스러운 아이라서 그것이 가능할지 어떨지도 몰랐지만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이 길을 걸어서 스페인까지 갈래요. 세계 구석구석까지 가보겠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거 좋겠구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일본어의 뉘앙스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좋겠다고 하면서도 놀리는 듯한, 동시에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듯하면서도 격려하는 듯한— 그런 어조였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납석(蠟石)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고운 결정의 흰 돌로, 무르기 때문에 그것을 돌에 긁어서 글자를 쓸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납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나오는 작은 동굴이 있었고 마을 아이들이 소유권을 가졌으므로 그곳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이니 공책 따위는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책에 필기할 수 없었고 연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면, 산수 시간에는 학교에서 나와 큰 강에 설치된 콘크리트 다리로 향했습니다. 이 강당의 한 열 내지는 두 열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다리에 콘크리트가 씌워져 있었는데 모두들 거기에 납석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 본인이 잘 모르는 문제는 바로 주위를 둘러보고 공부 잘 하는 녀석의 답을 베껴서 “니 실력이 늘었구나.” 하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까닭에 저는 좋은 납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외국 여러 나라에 갈 거예요 오에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 마크를 적어놓을 테니까 어머니가 외국에 가면 유심히 봐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겐자부로(ケンザブロウ)의 ‘ヶ’, 일본어 가타카나의 ‘ヶ’를 원으로 둘러싼, 그것을 제 마크로 삼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지에 가서 마크를 적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48년이 흘러 노벨상 수상으로 스웨덴에 가게 되어 어머니에게 그 일을 알려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요즈음 우울증 상태라서 저희들과는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노벨상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거 잘됐구나.”라 대답하시고 “그런데 상을 받으면 뭐가 좋은 거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글쎄요, 여러 가지로 좋겠지요. 상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은 자세히 읽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상금을 받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가서 납석으로 제 마크를 새겨놓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재미있는 분이라, 근처 아이들에게 부탁하여 이미 납석 따위는 아무도 캐지 않는 동굴에서 커다랗고 좋은 납석을 입수하여 제게 보내셨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 “스웨덴의 곳곳에 ‘스’라 적어놓겠다 했었는데, 그 납석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곤란할까봐서 언제나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가 잔뜩 튀어나온 우스운 사진도 있습니다만.

* * *

그렇게 외국이라는 대상에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이 끝나고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외국에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19세로 대학에 입학하여 23세에 졸업했습니다만, 그 무렵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에 외국어를 공부하여 외국어로 된 글을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국을 이해할 수 있다, 마을 내부의 인간으로부터 외국을 향한 인간으로 자신을 펼쳐나가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자, 아니 먼저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격려해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지금도 성함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사회과목 선생님이로 부임하셨는데, 마을 사무소장 아드님이었지만 매우 훌륭한 선생님이로 우리들에게 지극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분도 그 선생님입니다.

일본의 헌법 제9조에는 전쟁의 방기(放棄)라는 조항이 있어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며 전쟁을 위한 군비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9조의 제1항, 군비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2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거대한 군대를 보유하고 군비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 전쟁은 벌이지 않고 있지만 전쟁터에 자위대 파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9조란 유명무실하다고 할까, 헌법의 규범, 모델이 있으면서도 그 현실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일본인들의 문제입니다.

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저는 헌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되돌려야 한다고, 헌법 위반의 현실을 조금씩 돌이켜 보며 진실로 평화에 대하여 고민하는 국가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살아 있는 사이에 그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떨지는 알 수 없고 아마도 그렇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저 일본인은 죽을 때까지 헌법을 문자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주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신다면 감사할 것입니다.

* * *

그때 선생님은 헌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세계를 신뢰하고 세계 각국이 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을 믿으며 이와 같은 헌법을 만든 것이다. 요컨대 일본 국민은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각국 국민의 공정(公正)과 신의(信義)를 신뢰하며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고자 결의했다.”라고. 그 각국 국민, 모든 국가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정함(fairness)과 믿음을 지키겠다는 진심을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한다, 즉 주변 국가들의 국민들을 신뢰하며 우리들은 이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군비도 보유하지 않겠지만 안심할 수 있다고 어린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헌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에 군, 각국 국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본인이 세계 각국 국민이라는 대상을 떠올릴 때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일본과 이웃한 나라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사람, 북한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전쟁 중 우리들은 피해를 끼쳤다. 그 나라에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다.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금후 일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공정하게 판단하며 신의를 지켜줄 것이라고 자네는 믿을 수 있는가?” 하고 선생님이 질문하셨고,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우리 어른들이 지금부터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일본인에게 신의와 공정함을 보여줄 사람들이 그 나라에 생겨나도록 그리고 일본인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

인이 각국 국민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일본 주변국 사람들이며 이 나라와 이웃한 국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기본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셨습니다. 교육기본법에 ‘우리들은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된 것과 같이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이때 세계란 우선적으로 일본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을 의미하니 넓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계라든가 각국 국민이라는 것은 막연히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 * *

한편 외국에 가기를 위해서 외국어를 조금씩 공부하게 되었고 선생님께 이런 지도까지 받은 시점에서, 유럽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중국에도 가고 싶다, 한국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는 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균형이 잡힌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상황에서는 외국에 나갈 수 없었기에 우선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전후의 일본에서는 새로운 도서가 쉽게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가난했고 재료도 없었고 인쇄할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출판된 현 책을 수집하여 판매했고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우리들이 책을 입수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 * *

아까 고려대학교의 어떤 학생 분에게 들었습니다만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노점상을 열어 헌책도 판매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헌책 노점상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헌책을 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을 사주셨는데, 전쟁 중이었습니다. 미국과 교전하는 상황이니 마크 트웨인(Mark Twain; Samuel Langhorne Clemens)이라는 필명을 지닌 미국인이 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선생님께 알려지면 큰일이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

고 어머니께서도 좋아한다면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어도 괜찮으니까 읽으라고. 선생님께 발각되어 작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마크 트웨인이라면 미국인 아니냐라는 질문을 당하면, 어떻게 대답하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독일 사람이다, 어린이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은 동맹을 맺고 전쟁 중이니까 국가의 방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고 말이지요. 정말로 저는 교장 선생님께 붙들려, 작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고,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름은 미국인풍이지만 실은 독일인의 필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옳지. 잘 알고 있구나.”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였고, 미국에 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미국이라고 하면 뉴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 뉴욕이 아니라 미시시피 강이 숲속을 힘차게 흘러가는 풍경이 그려집니다. 우리 마을에도 오다가와(小田川)라는 강이 있어 숲 사이를 흘러가고, 언제나 그곳에서 뛰놀았습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한쪽 구석지에 자리 잡고 있을 법한 곳에서 미국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모험을 하거나,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희망을 품거나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시코쿠의 숲 속에서 살아가던 아이였던 나에게도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 허클베리 핀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나도 이 마을의 생활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차차 마을의 생활을 즐겁다고 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허클베리 핀이라는 인물은 불량소년입니다만, 미시시피 강을 흘러가는 도중 짐이라는 흑인 친구가 생깁니다. 당시 미국에 노예해방이 처음 실시되었던 무렵이었으므로, 어떤 주에서는 노예이지만 다른 주로 가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그 주의 공민으로 취급받는, 그런 복잡한 입장이었습니다. 짐은 허클베리가 어릴 적 살고 있었던 마을에서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누군가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노예해방이 이루어진 다른 마을로 도망쳐 와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을 따라 내려와 이 마을에 도착한 허클베리 핀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을에서 살아갈 때 교회를 다녔고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었는데 그 중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의 재산이 도난당하거나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소유주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이 신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인간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떠올린 허클베리는 짐이라는 흑인이 노예이며, 어떤 아주머니—매우 좋은 사람입니다만—의 재산이므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편지를 씁니다. “아주머니, 여기 온 짐을 붙잡아서 데려가면 당신의 재산이었던 노예는 다시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이 편지를 보내려 할 때, 그는 고민합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고 나도 이런 인간이다.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자, 하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짐이라는 친구를 배신하려 했다. 고발하려 했다. 밀고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겠다. 나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옥에 가도 좋다. 좋다, 나는 지옥에 가겠다.”라고 허클베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이 행동을 후회하지 않겠다, 이 결심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허클베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자신의 방침으로 삼자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당하게 행동하려 할 때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면 그만두고픈 마음이 생겨나고 용기도 꺾일 테니, “좋다, 나는 지옥에 가겠다.”고 결심하며 나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방침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더니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괴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좋다, 나는 지옥에 가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야구부 학생이 일반 학생에게서 10엔을 갈취했다는 사실을 교장 선생님께 알리러 갔다가 교장 선생님께도 혼나고 야구부원들에게 얻어맞기도 했지요. 저는 야구부라는 것은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쓰야마(松山) 히가시(東) 고등학교라는 규모가 큰 학교였기 때문에 야구부원이 50명이나 있어, 모두들 내가 오예를 때려주겠노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학교에 가면 줄곧 얻어맞고 울면서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좋다, 지옥에 가겠다.”고 생각했던 탓이지요.

* * *

외국 문학을 전공하고자 마음먹고 외국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와타나베 가즈오(渡辺一夫)라는 위대한 프랑스 문학자가 집필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학생 여러분이 즐겨 읽는 시리즈물이 있겠지만 그런 책 중 하나로 프랑스의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6세기 신교(新敎)와 가톨릭의 분쟁으로 종교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신교 국가와 구교(舊敎) 국가의 전쟁이 100년가량이나 이어지던 시기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조금씩 진정한 학문, 인간에 대한 탐구를 되살리자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중세 15세기, 16세기의 프랑스 학문은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소르본 대학 등의 학교는 존재했지만 공부할 장소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학자도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가 하면, 자신들의 선조이자 고전인 라틴어의 세계, 혹은 그리스어의 세계를 다시 연구하자, 가령 의학이라면 의학에 대한 것을 그리스 고전으로 재차 학습하자고 주장하며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마니스트(*humanist*)'라 불렀습니다. 위마니스트란 프랑스어 발음이고, 영어로는 휴머니스트입니다. 즉 휴머니즘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인간은 어떠한 것을 진정한 인간다움이라 말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행동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사고하는, 그리고 반성하는 것이 휴머니즘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대학 내부로 들어와 대학 제도의 일부를 이루며 근대적 대학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연과학이라든가 공학과 같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이러한 행동은 바람직한가, 혹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문, 그것을 프랑스의 휴머니즘이라고 한다면, 그 휴머니즘을 근본으로 현대의 휴머니즘을 연구하는 학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학부(理學部)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의 원리는 저 르네상스에 있다는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동급생 중에는 이학부로 진학한 사람도 다수 있는데, 공학부 혹은

경제학부 출신으로 인문학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인문학이 불필요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 우리 문과의 인간도 이과의 인간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

<나의 문학과 지난 60년>이라는 것이 제 강연의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난 60년이라기보다는 소년 시절부터 청년이 되어 대학 진학에 이르기까지의 제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제 문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만, 외국어로 이루어진 글을 읽게 된 것이 소설 집필의 계기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국어로 소설을 읽는다면, 가령 미국의 소설이라면 미국 어딘가에 있는 어린이와 시코쿠 벽지에 있는 자신을 연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일본어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보리라 생각한 것이 제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동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속에서 어린이가 보내는 나날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에 대하여 쓰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교장 선생님에 대하여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그 교장 선생님이 매일 아침 조례(朝禮)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천황 폐하께서 자네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조례 시간에 교장 선생님 앞으로 아이들 몇 명을 불러내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죽겠습니다. 할복(割腹)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었고, 모두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질문하면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질문이 날아온 다음 박자에 “죽겠습니다.” 그 다음 박자에는 “할복해서 죽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대체로 매우 멋진 3박자로 문답이 이루어진 후 조례의 훈시가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고민했던 것입니다. “오예, 천황 폐하께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전쟁 중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오다가와리는 강 옆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나에 대

해서 천황 폐하가 알고 계실까 하고, 그리고 잠깐 침묵했습니다. 대답이 척척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입을 다물자 한 박자가 비었고, 선생님은 제게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뭐, 매를 맞았지요. 저는 매우 멍한 면이 있어서, “예, 죽겠습니다. 할복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바로 이어나가면 될 것을, 과연 그럴까 하고 자문한 것입니다. 의문을 품는 제 자신을 억누르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매를 맞았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이에 대하여 언젠가 글을 쓰겠노라고,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의 이름은 실명으로 쓰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야노마 다이치 교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글로 옮겼는데, 외국에서 번역 출판되던 대개 번역자에게서 질문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요즘에는 이메일로 보내지요. 얼마 전에도 포르투갈에서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Who is Yanoma Daichi?”라고 써어 있었습니다. 오제가 그토록 열심히 실명을 쓰고 있으니, 일본의 역사적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여겨 질문하는 것이겠지요. “그 사람은 저를 때렸던 사람입니다.”라고 답변하면, 고지식한 분은 “이 작가를 때린 사람이다.”라고 주석을 달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 * *

그러나 제게 전기(轉機)가 찾아왔습니다. 28살 때로 기억합니다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뇌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에 장애가 있어서 처음 태어났을 때에 머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후두부에 커다란 혹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사가 절제하려 해도, 그 무렵에는 혹이 붙어 있는 두개골 부위의 구멍으로부터 뇌가 밀려나왔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이라 아직 CT 스캔이라는 것이 없었고, X-Ray 등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갓난아기였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었기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던 상황 속에서 1개월을 보냈고, 수술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크기로 말하자면 마치 탁구공만한 한 뼘 덩어리가 절제한 혹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뇌의 일부분일지도 모르겠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사가 제 아내에게 “부인, 당신이 임신했을 때 곁에서 남편이 탁구를 하고 계셨던가요?”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정말입니다. 그 질문에는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만.

* * *

아들이 태어난 후 저는 이 아이를 중심으로 생활해 나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소설을 쓴다는 행위가 그다지 가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역시 과학 분야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수학이 서툴렀기에 문과로 진학했습니다. 그 후 외국어가 재미있어서 글을 찾아 읽고 소설을 써 왔던 셈이니, 제게 있어 소설을 집필한다는 것이 생산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제법 오랜 기간 소설을 써 왔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인간은 자신과 아내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좋다. 나는 지옥에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다니 그녀는 “지옥이라고까지 말 할 건 없잖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만 이 아이와 함께 나아가자, 함께 살아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아이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 장애를 지닌 아이가 있다,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아간다, 무언가 희망을 찾아 살아나가려 한다, 그것을 소설로 옮겨 독자들에게 시사하고자 했습니다. 일본에 지능에 장애가 있는 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젊은 작가가 있는데, 그 사실이 그에게 있어, 그라는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일본인이 있다는 것을 쓰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소설을 썼고, 벌써 그 아이가 42세이니 40년 이상 글을 쓴 셈이 됩니다. 지금 돌이켜볼 때, 다행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의 문학이라는 것을 거침없이 펼쳐나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을 향해서 펼쳐나가자, 세계를 향해서 펼쳐나가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주제로 글을 쓰자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길러 나갈까,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까 하는 내용을 집필하는 것을 자신의 문학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연이겠지만, 말은 하지 못해도 청각이 매우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새가 우는 소리를 TV로 들으면, 그 소리의 음정을 전부 기억하고 자신이 만든 악보 같은 것이 있어 노트에 옮겨 적을 수 있었습니다. 가령 피꼬리가 울면 바로 노트에 적고, 이것은 피꼬리 울음소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피아노로 음이나 화음을 두드려, 그것을 어떻게 적는가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빠르게 진보해 나갔습니다. 그 무렵, 미국의 젊은 여성이 어린이들에게 음악의 조(調), 조성(調性)을 교육하기 위한 새로운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일단 다장조(長調)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장조의 음악을 듣고 다장조의 화음을 익힌 후 라단조(短調)를 배우는 식으로 전개시켜 나갑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교육과 달리 여러 가지 음과 음계를 한꺼번에 가르치는 법을 고안해낸 것으로, 매우 과학적이고 우수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은 말도 거의 하지 못하면서도 그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고 한 달이 지나자 모든 음계와 조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면, “사단조네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지인 중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라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전화를 걸어 아들이 받자 “오에 씨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오오카 선생님은 오늘 한 음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틀림없이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오카 쇼헤이 선생님은 그 날로 입원해서 돌아가셨지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악을 작곡하게 되어, CD도 제작했습니다. 외국에도 그것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전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에 제 아들의 음악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매우 기쁘게 여겨,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강연회를 시작할 때 CD를 가져와서 ‘실은 이것이 여러분의 학교에 기부하고 있는 전자제품 회사의 광고입니다’라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방침이 바뀌어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 * *

노벨상을 수상할 때에 수상 연설, 수상의 이유를 밝히는 연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업적을 쌓았으므로 상을 받는다는 연설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황석영이라는 분이 가까운 시일 안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기술화 문제 등 서구로부터 유입된 문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국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감

동적이고 새로운 수법으로 묘사한 소설가라는 것이 황석영 씨의 수상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에는 시적인, 시와 같은 상상(imagination)을 구사한다. 매우 세심하게 현실 생활을 다루며, 그는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predicament)을 묘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수상 이유는 노벨상 발표 때 물론 스웨덴어로 발표되지만, 영어로 정식 요지문이 작성됩니다. 그것을 일본인, 프랑스인 등이 각자의 국어로 번역하여 그것이 정식으로 결정되면 각 나라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 ‘predicament’를 ‘실정(實情)’으로 해석하거나 ‘양상(樣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에는 인생의, 현대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하는 양상, 모습을 그렸다. 그것을 충격적으로 묘사했다.”는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약간 잘못된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predicament’란 분명 ‘양상’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상태,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양상, 이라는 경우에는 ‘predicament’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사실 ‘predicament’란 단어는 인간의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상이라고 하면 중립적이지만, ‘predicament’는 ‘괴로운 상태, 역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역경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극히 괴로운 상황을 가리켜 ‘predicament’라고 합니다. ‘오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양상, 곤경(predicament)을 극명하게 그려낸 작가다.’라는 이유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설은 아이에 대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글이었고, 그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좁아지고, 문학의 시야도 좁아졌지만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 *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같고 수십 년이나 친구로 지냈던 사람으로, 3년 전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문학 이론의 전문가로, 사망하기 전까지 특히 문학의 제국주의, 문화의 제국주의에 대하여 고찰했습니다. 한 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문화란 매우 다양합니다. 외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가 서로 교환되거나, 혹은 미국에서 시작된 파워풀한 댄스뮤직이 세계를 종횡하며 일본

에도 중국에도 폴란드에도 한국에도 존재하는, 그런 식으로 세계를 누비는 문화, 서로를 연결짓는 문화를 젊은이들이 문화로 삼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문화란 이런 것이라고 결정짓고 교육 등에서는 케케묵은 문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가 아니면 안 된다며 국가의 아이덴티티와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나,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세계를 공격하며 군사적으로 강한 미국이 정의라는 문화를 젊은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사이드는 “문화는 보다 자유스러워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갖가지 문화를 지닌 인간들이 개성을 살려나가며 협력하는, 다양성과 넓이를 지닌 문화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지에서 극히 치명적인 문화가 대두하고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하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상호 이해와 화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숙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해박하던 사람으로, 저에게 보낸 편지에 “팔레스타인의 토지를 빼앗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근현대사 속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본 제국이 한국을 통합하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후 한국이 해방을 맞은 기간보다도 훨씬 오랜 현실로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팔레스타인이다.”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활동하며 훌륭하게 싸워왔지만 병에 걸려 3년 전 사망했습니다.

* * *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친구였던 우리들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토 마코토(佐藤真)라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에드워드 사이드 *Out of Place*>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2주 전 도쿄에서 큰 집회를 열었는데, 1200명의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사이드 씨는 극히 힘겨운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사실 해결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언제쯤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린 후에도 절망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팔레스

타인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싸우고, 이스라엘이 군대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몰아내려 하는 상황.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이 자폭 공격 테러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것이 언제까지고 반복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언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될지 미지수라고 모두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이드는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란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충돌하여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은 인간다운 행동이 아니다. 인간이 이처럼 부자연스런 상태로 계속 나아갈 리가 없다. 그 점에서 어떤 해결책이 생겨나리라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센 의지를 품고 자기 스스로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자신을 지탱해온 사람이 사이드 씨였다고 그 사람—마이클 우드(*Michael Wood*)라는 사람입니다만—은 말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결될지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이스라엘은 더 큰 괴로움을 맛보게 되리라고 마이클 우드는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50대이지만, 제가 70대가 되고 보니 현재 일본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과 아시아 각국의 문제라든가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여러분께서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계시지만,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많고, 그것을 정치가들이—특히 일본의 정치가들이 그렇지만—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중국과 한국, 북한, 일본의 각국이 화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아시아의 장래는 어두워집니다. 전쟁 직후 진지하게 고민하던 일본인들이 지금은 그 바람을 망각하고,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바람직할 리 없습니다.

저도 사이드처럼 언젠가는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리라 예상합니다. 아시아에 뚜렷한 화해의 조짐이 앞으로 5년 사이에 나타날까 하고 물음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중국에는 해결될 것이고, 아시아의 화해를 아시아 각국이 원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휴머니스트적인, 휴머니즘을 연구하거나 학문을 실천하는 인간적인 철학, 정신이 존재하는 이상 그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이드처럼 굳은 의지를 품고

믿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생전에는 무리일 테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학생들 중에도 현재의 일본과 중국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리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는 중국에 가서 중국의 중학생들과 대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 *

몇 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小泉) 수상은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에 참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을 포함하여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신으로 받들고 있는 신사.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절이 아닙니다. 신사이므로 그들을 신으로 받들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수상이 참배합니다. 그에 대하여 한국의 대통령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중국에도 그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 수상은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일본 미디어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니까, 마음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간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마음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인정합니다. 무조건 고이즈미 수상에 대한 반대를 부르짖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 저는 “물론이지요. 좋습니다.”라고 말할 작정입니다. 만약 전화라도 걸어준다면 말이지요. 그러나 제 경우라면 자기 마음의 자유를 보다 소중한 곳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를 자기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령 아시아에서 진실로 화해가 성립할 수 있는가, 진실로 서로를 신뢰하며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제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고이즈미 수상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야스쿠니 문제 따위에 당신의 마음을 집중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성립되어 있는 정부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타국간의 국제관계라든가 하는 것보다도 한 단계 위에서 마음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 * *

인간다움, 인간다운 마음의 자유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가령 기독교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교도들이 자신들의 종교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을 벌입니다. 똑같은 종교입니다. 종교관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죽여도 되는가, 서로를 살린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하고, 기독교 내부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간의 전쟁에 대하여 비판하는 의견이 등장합니다. 가톨릭은 신교도를 살해하지 마라. 역으로 신교도가 구교도를 살해하는 것도 그만두라고 말입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반성해보자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휴머니즘 정신의 시초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휴머니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들은 휴머니티란 것을 연구하며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모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일본에서 오는 일본인도 있는 것입니다.

휴머니티란 인간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자유란 것은 휴머니티의 최대 근거이니 그것을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기를, 자신의 형편에 따른 정치적 공작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보다 유익하고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마음의 자유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 말에 구속되지 마시고 자유롭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좌담회 질의응답】

▶▶ 질문 1

최근 오에 선생님의 <‘나의 나무’ 아래서(「自分の木」の下で)>를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지적 감각을 엿볼 수 있었던, 또한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제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던,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책읽기를 좋아했기에 <‘나의 나무’ 아래서>에 나타난 오에 선생님의 독서력, 책을 읽는 능력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젊은이들의 독서량은 실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매일처럼 들려올 만큼 문학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20대 작가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최근 문단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작가의 대다수는 30대 작가들입니다. 20대의 사정이 이렇기에 10대 청소년들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어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홈페이지의 게시판,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혹은 채팅에서의 대화가 주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용되는 말, 언어는 전통적인 문학의 언어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0대, 20대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문학이 아득히 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교육자로서, 또 부모로서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것은 ‘책읽기의 즐거움, 문학의 매력’ 바로 이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문학 교육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목표해야 할 문학 교육에 대하여 오에 선생님의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 질문 2

저는 문학의 참여성과 순수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쉽게도 17~18세기의 한반도에서는 일본만큼 다양한 소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에도(江戸) 시대의 고전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특히 에도 시대의 소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순수소설에서 사회 고발적 참

여소설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1960~70년대는 문학의 참여성과 순수성에 대하여 격한 논쟁이 일어났던 시기이며, 저는 그 시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국어 시간에 공부하는 문학의 참여·순수성에 비춘 절대적 해석에 의문을 품었던 세대임을 새삼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20~30대의 젊은이들에게 있어 이미 문학의 가치가 참여, 혹은 순수의 이분적인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이 부재’ 하는 현대 사회에서 각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장 확고한 매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러나, 문학이 참여·순수성을 버리고 유행이나 대중적인 것만을 좇기에는 그 존재의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후의 문학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리라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언어문화란 완성된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채팅이라든가 블로그, 그 속에서도 새로운 언어 문화라는 것이 싹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 새로운 언어문화—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과 관련된 새로운 언어문화—라는 것도 항상 책을 읽고 쓴다는 고전적 언어문화와 결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채팅 등의 읽을 수 있는 대화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학으로 바꾸어 보는 것은 유익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작가 중에도 인터넷 속에서 사용되는 짤막한 대화의 문체를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훌륭한 언어문화라는 점에서, 인터넷이나 이메일 속에서 새로운 표현이라는 것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 쪽이든 언어를 사용하는 만큼 새로운 표현 속에서 새로운 문학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재미있는 것이 생겨나면 새로운 문학으로서 새로운 독자를 얻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쓰는 것과 읽는 것, 그리고 인터넷 등의 새로운 문체와 새로운 문맥이라는 것을 검토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언제나 머릿속에 담아 두고 쓰거나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훈련했으면

합니다. 가령 학교와 교실에서 지도하는 경우나 인터넷이라든가 이메일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메일이나 인터넷에 올리던 글을 문장으로 옮겨보라, 문자화해보라, 그것을 스스로 다시 읽어보라는 식으로 읽고 쓰는 방향으로 이끌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 인터넷과 이메일에서 쓴 글은 생생한 재미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른 문법으로 고쳐 쓰거나 보다 바람직한 표현을 찾아내는 등, 자기 자신의 언어를 훈련하기 위해서 먼저 고쳐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10시간이라면 그 중 30분 정도는 스스로 쓴 것을 수정하도록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읽어본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는 행위에서 고쳐 쓴다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상의 발언을 수정하고 글로 옮기기 이전에 스스로 다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모 언어학자는 영어에는 'reread', 'rereading'이라는 단어가 있어 다시 한 번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서의 경우에도 처음 읽는다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장소를 탐험하러 가는 행위라 할 수 있고 'reread', 즉 다시 한 번 읽는다는 것은 지도를 숙지한 상황에서 반복 성찰하는 행위입니다. 'reread', 거듭해서 읽을 때에 자신의 지적 탐험이 가능하다고 그 학자는 주장합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일단 써놓은 글을, 문학적 대상이 아닌 내용을 다시 읽어본 후 수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언어문화가 아닌 대상에 언어문화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웅얼이를 알아듣고 정확한 단어를 가르쳐주면 다시 아이가 그것을 입에 담는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이 언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일본의 의학자 고바야시 노보루(小林登)가 주장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기가 웅얼이하듯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내뱉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메일 등으로 무심코 편지를 써서 보냈다가 상대방의 분노가 담긴 답신을 받아본 경험이 없지요? 그것은 아기가 무엇인가 말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이 실제 올바른 언어 표현인지를 항상 검토해 보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지극히 근본적·기본적인 언어와 말의 자기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 둘씩 짙막한 언어로 재미를 표현하는 소설가가 나타난다면 이를

지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문학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학적 언어를 다듬는다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든 읽고 쓴다는 행위는 언어의 순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언어 표현의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동시에 문학의 사회적 문제 표현이라는 것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학에서는 사이카쿠(井原西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지만, 그의 글은 정말이지 다듬고 또 다듬어진 언어입니다. 언어를 다듬다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회성이 결핍된 경우, 동료들과 서로 대화하는 중에 사회적 문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날카롭지만 문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글을 쓰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등 그룹으로서의 문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학의 순수한 가치, 문학의 참여성, 사회 참가적 성격이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문학의 순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성을 지닌 인간의 문장을 검토한다, 혹은 그 역의 방향에서 생각하면 문학의 참여성, 문학의 순수성이 하나의 구체적 문제로서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쓰고 읽기, 다시 쓰거나 읽어보는 것은 용이하므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 보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쓰고 읽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다듬어보는 것으로써, 혼자서 문학을 하던 사람이 주변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써 자신의 분야를 넓고 깊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문학에 대한 두 분의 질문은 한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세계, 통신상의 언어와 문학적인 언어의 문제, 그리고 혼자만의 문학 속에 틀어박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역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 글을 써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언어를 정련하여 문장으로 옮기고 있으니 그 공간에도 문학이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질문은 하나의 문제로서 취급할 수 있고, 두 분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3

선생님의 <치료탑(治療塔)>, <치료탑 흑성(治療塔惑星)>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순수문학 작가의 SF 소설 집필이란 전례 없는 일은 아닙니다만,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치료탑>, <치료탑 흑성>을 SF라는 형식으로 집필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질문 4

일본을 대표하는 양심적인 지식인, 행동하는 지식인,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식인, 또한 실천하는 지식인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선생님을 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나의 나무’ 아래서>라는 수필 속에, 숲속의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나무’로 정해둔 나무가 있고, 때때로 숲속에 들어가서 ‘나의 나무’ 아래 서 있으면 나이를 먹은 자신과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써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은 근사하게 보이는 커다란 나무 밑에서 나이를 먹은 자신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다렸다고, 그리고 운 좋게 그 사람과 만난다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그로부터 60여년이 흘러, 선생님 자신이 숲의 노인이 되어 어릴 적 자신과 만난다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소설을 써왔던 것일는지도 모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대답은 지금도 변함없는지요? 만약 그 질문의 답변으로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 질문 5

<타오르는 푸른나무(燃え上がる緑の木)> 3부작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영혼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종교’ 개념이 등장합니다. 작품 안에서 K백부리는 인물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존주의자에게 있어 종교를 통한 접근’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작품에서는 기독교와 깊은 관련을 가진 듯한 외면적 표현이 보입니다. 이에 비하여 실제 종교라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참선을 통하여 자신의 정신을 정화시킨다는 면에서 다른 종교적 자세, 혹은 철학적 자세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상이한 개념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첫 번째 답변으로, 저는 얼마 전 사망한 스타니스와프 렘(*Stanislaw Lem*)의 작품을 즐겨 읽습니다. 과학 소설을 좋아하고, 과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과학 소설이란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핵무기라는 현실에 임박한 문제를 소설로 옮겨보고자 했습니다만,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수월하지는 않았습니. 둘째 아들 말에 의하면 그것은 NSF—가짜(二重) SF—라고 부르는 편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과학 소설은 재미있고, 오늘날처럼 과학이 점차 인간으로부터 유리되어 가는 경우에 과학 소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최근 양질의 번역판이 다량 출판되었지만 만일 한국어판이 없다면 스타니스와프 렘의 소설을 번역 출판할 것을 추천합니다. <*Solaris*>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릴 적 저는 할아버지가 된 자신과 만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의 사고방식이라고 할까요. 30~40대까지는 아직 어리다고 할까, 젊은이 측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일생을 지내온 인간으로서, 멋진 인생은 아니었다고 어릴 적 자신에게 말해주고픈 마음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해주고 싶습니다. 올해 9월에 일본에서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특별 공연이 열립니다. 호네크(*Manfred Honeck*)라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지휘로 모차르트의 <레퀴엠(requiem)>을 공연하고, 제 시가 그 자리에서 낭독될 예정입니다만, 약 150행의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올해 손자가 둘이나 태어나서, 그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자신의 70년생이 실로 고통스러웠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70년을 살자면 저보다도 더욱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자니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두 배

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린이의 장래라는 것을 노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인데, 저는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종교에 접근하여 영혼의 문제를 쓰고자 했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본에서 음진리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문제로 우리들의 관심을 이끌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종교에 쓰이는 언어 등을 사용하며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것이 동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한 분에게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Simone Weil*)의 작품과 논문을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사회주의 운동에도 투신했던 인물로, 가톨릭에 깊이 경도되었으나 결국 입교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가능한 한 종교 문제를 종교 내부에 개입하지 않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 가장 좋은 표본이 시몬 베유입니다. 특히 <신을 기다리며(*L'attente de Dieu*)> 등은 확실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2년째 시몬 베유의 전집을 프랑스어로 읽고 있습니다.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이고 질문자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질문 6

최근 한국이나 일본 모두 영어 교육에 열중하고 있어 수년 전 일본의 영어 제2공용어화론이나 한국의 영어공용화론과 같이 영어를 공용어의 위치로까지 끌어올려 전 국민의 영어 교육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에 대하여 ‘한국어’라는 언어의 화자로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어의 패권이 날로 확산되는 이 시대에 앞으로 세계의 언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신의 모어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언어를 다루는 문학자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질문 7

다소 문제가 있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20~30년 전 민주화를 위하여 독재에 항거할 수 있었던 세대가 부럽게 느껴집니다. 당시 ‘정의 실현’이라는 명백하고 거대한 가치담론이 존재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것을 목표로 뚝뚝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반면 눈부신 발전과 함께 다각화된 현대 사회 일면에는 꿈을 상실한 젊은이들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니트(NEET)족,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 등교 거부, 게임 중독 등 정신적 공허로 방향성을 잃은 젊은이들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에 접어들어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 생각해왔으나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저와 같이 다음 세대를 교육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접근 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질문 8

선생님의 <상처를 딛고 사랑을 되찾은 나의 가족(恢復する家族)>을 읽고 제가 재직하는 학교의 한 학생을 떠올렸습니다. 교사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 학생 사이에서 갈등이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현명할지,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비장애인 청소년들과 현직 교사들이 장애인 학생들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 문학이란 일본어의 어떤 말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언어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가령 방금 전 이야기했던 ‘참여문학(参加文学)’의 ‘참가, 참여(参加)’라는 일본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한국어에도 있겠지만, 그런 언어의 차이라는 것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자신의 언어, 모국어의 토대 위에서 외국어를 익히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기본적으로 모국의 언어를 제대로 익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심

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어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 외국어로 대화가 가능케 된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모국어를 확실히 다진 후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모국어를 방치하고 외국어만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6개월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 모였을 때에는 제대로 일본어로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전부 잊고 독일어만 하게 된 아이가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지요. 그 후 일본에 돌아와서는 또 “독일어는 전부 잊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국어의 기반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우 한국어를 자신의 언어로서 굳게 다지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연결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외국어를 익히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려면 아무래도 ‘말’이 필요하므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확실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에게든 가족에게든 분명하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홀로 끌어안고 있던 문제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문장으로 옮겨보는 등, 자신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장애아의 아버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의 장애아와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면 확실히 학습진도 상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가 심각한 사람들과 교육받게 되면 분명 손해를 보거나 힘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태에 따라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유리한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들의 경우 늘 자신보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교육입니다. 물론 장애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는 중증의 장애를 지닌 아이가 귀찮은 존재가 되거나 않을까 하고 부모들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심한 아이를 도우려는 마음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유익한 교육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제도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여겨도 좋습니다만, 그보다는 장애를 지닌 아이와 그 부모를 위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을 장애아와 그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 질문 9

일본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그간의 역사에 있어 저는 ‘기억과 망각’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에 관한 특정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편, 쉽게 망각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기억과 망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서로의 망각을 넘어서 상호간의 역사에 대한 이해, 의식적인 기억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의 만남, 상호간의 이해에 대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질문 10

전전세대 혹은 전쟁에 참여한 세대에 대한 전후세대나 현재의 젊은이들의 태도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발전은 대부분 전쟁에 참여한 세대 혹은 전쟁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의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후세대들은 전전세대가 쌓아 올린 사회의 밝은 부분을 향유하면서 전쟁 혹은 전쟁 참여 세대에 대하여 비판적이거나 무관심한 듯 여겨집니다. 전전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비단 일본의 국내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하여 정립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이러한 일본인들의 태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질문 11

아사히(朝日) 신문이 2006년 4월 15~16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70%는, 연합국이 일본의 A급 전범을 단죄한 도쿄재판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90%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또한 4·19 민주화 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12·12사태와 같

은 근현대의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깊은 관련을 가진 관계자들이 아직 살아있고 이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며 역사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보다 심도 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질문 12

선생님의 소설 속에서도 묘사된 바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곧잘 자신의 경험인 양 기억하곤 합니다. 일본인들의 한국인·재일한국인들에 대한 멸시감, 혐오감이 그에 속하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인들은 지나친 반일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일반적인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표출되면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잘못되고 과장된 기억 때문에 우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일반인들이 여론 호도와 역사 왜곡에서 벗어나 민중적 차원에서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 답변

작년 12월에 파리에 다녀왔습니다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연상의 소설가와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라는 체코의 소설가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 중 기억과 망각에 대한 내용이 있고, 권력이나 힘을 가지지 못한 인간에게 있어 유일한 무기는 ‘기억하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저도 실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하며 그것을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 문학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곧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경우 다른 사람의 기억, 어린이의 기억 등을 왜곡시켜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는 이런 것이었다고 위장하려 하는 것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쓰라린 부분일지라도 기억하고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

리들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자신의 현실을 가능한 한 종합적으로 이해해 나가며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공기를 마시듯 필요한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그 점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진지하게 기억하려 하지 않는 듯합니다. 상대방에게 이쪽의 입장을 설명한 후 그에 대한 반응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식의 대화적인 부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뭔가 불필요한 문제발언을 하고 상대가 침묵하기를 기다린 후 또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그와 같이 되풀이하는 것으로 7년간을 지내왔습니다. 그것은 높이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이즈미의 방침 중 성공한 듯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후 2~3년 사이에 반작용이 나타나 도리어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일본인들은 경험하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두렵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이즈미의 발언을 지금 잘 기억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대의 일본 사회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굴러가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나아가면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동시에 나쁜 일도 있다는 것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비판에 고이즈미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일본인들이 답해야겠지요. 자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상태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노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문학입니다. 고이즈미는 잘못된 방침을 고집한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자신보다 연상인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죽을 테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지만 고이즈미가 죽기 전에 제가 죽을 테지요. 상대방 역시 저 작자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지만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죽고 나면 '당신 참 잘 싸웠다'고 TV 등에서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만은 막아주기를 지인들에게 다짐해두고 있습니다.

근래 2~3년간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연설은 우리들 외국인도 경의를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명확한 입장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고이즈미의 애매한 발언에 한국·북한·중국의 사람들이 반응을 표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이즈미가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더라도 일본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일본 측에게 아시아 관계의 국제적 진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의견을 밝히고 상대의 반응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수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좋지 못한 부분은 아무리 불만을 품고 있어도 일본인들은 정부를 동정한다는 점입니다. 정말이지 큰 문제입니다.

저는 매우 곤혹스런 기분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헌법 개정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요미우리(読売) 신문은 개정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이 재미있는 문제인데, 헌법 문제에 대하여 아사히 신문은 매우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일본 정부를 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고이즈미의 야스쿠니(靖国) 문제, 헌법 개정 문제, 아시아 국가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그대로 밝히면 좋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일을 꺼려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 측은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아는 사람 중에 아사히 신문 관계자가 있다면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저는 아사히 신문에 짤막한 원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거짓은 포함하지 않고 기억하는 내용은 기억한다고 옮기려 합니다. 그와 같은 행동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까 합니다.

▶▶ 질문 13

현재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헌법 9조'의 개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권 여당인 자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마저도 이 헌법 9조 개정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에 선생님이 속한 '9조의 모임(九条の会)'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통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투표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자는 취지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 반대 모임을 개최하여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국민 투표 차원에서의 개헌 저지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최근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에 의하면 개헌 찬성 43%, 반대 42%라는 것처럼, 여론이 매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최대의 신문이자 보수진영의 대표주자인 요미우리가 개헌 찬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진보측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히 쪽은 다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투표 차원의 저지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선생님을 비롯한 ‘9조의 모임’에 속한 분들은 아직도 국민 투표 차원에서 개헌 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질문 14

일본은 ‘헌법 9조’에 “무력의 행사는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영원히 방기(放棄)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의 이러한 취지에 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막강한 미군을 자국 영토에 주둔시키고, 세계 3위의 화력을 지닌 자위대를 육성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일본의 현실입니다. 99년의 신 가이드라인법이 통과된 이래, 일본군은 후방 지원의 형태로 사실상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개헌파는 9조 1항의 전쟁포기는 유지하고, 2항의 전력 불보유만을 폐지하여 자위 전력의 보유를 명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헌안이 어떻게 작성될는지 지켜보아야겠지만, 개헌을 주장하는 쪽이 일본 헌법과 현실의 모순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 9조가 실정법으로서의 의미조차 잃은 상황에서, 9조를 수호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설령 9조를 지켜낸다고 해도, 군사 대국을 지향하는 일본 정부를 막아내는 일이 실제로 가능할는지요?

▶▶ 질문 15

한국에서 선생님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양심적인 지성인’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심적인’이라는 수식어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선생님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하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펼치고 있는 ‘9조의 모임’ 등의 평화적인 사회 운동이 일본, 아

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오에 선생님이야말로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고 아시아, 세계 속에서 일본이 고립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로 갱생하기를 희망하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자들 중에는 아시아 각국과 ‘탈아(脫亞)’를 희망하는 일본을 이항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선생님의 평화적인 사회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의 편에서 홀로 투쟁하는 것이라고 다분히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와 같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 답변

저는 양심적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껏 자신이 양심적이라는 말을 듣고 흐뭇하게 느꼈던 적은 없습니다. 양심적이라는 말이 편리하게 사용되는 만큼 저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당신은 양심적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헌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조의 모임’에서 요전 사이타마(埼玉) 시 오미야(大宮)에서 3천명이 모여든 큰 집회를 가졌지만, 저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달 잡지 <세카이(世界)>에 교육기본법에 대한 제 논문이 게재될 예정인데, 이번 국회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듯합니다. 교육기본법이란 헌법과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평화를 명기하고 있으면서도 군비를 가지고 있는 현재 9조의 1, 2항이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은 평화를 목표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고, 이번에 그 교육기본법이 국회에서 개정됩니다. 다수파인 자민당이, 그리고 민주당 역시 그에 찬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일본의 교육위원회와 학교 선생님들이, 성실하고 올바른 교육을 펼치려는 사람들이 힘을 잃고 점차 애국심, 일본이라는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강해질 것입니다. 차차 교육기본법은 현재 법률 하에서는 힘을 잃어갈 것이고, 그 다음 남는 것은 헌법입니다. 현재 헌법 9조나 전문의 내용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현실 속에서 일본 정부는 군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니 헌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헌법에 대한 논쟁도 사라질 테지요. 더구나 개헌에 반대한다고 해도 일본인들은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을 60년간이나 지지해 왔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개헌 반대가 국민 투표로 과반수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자민당에 소수정당이 승리할 수 있는가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니 말입니다. 자민당, 민주당의 힘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헌법 개헌을 저지하더라도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 정당이 정권을 잡지 않기를 원하며 노력해왔지만, 그 점에서 저는 지극히 무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관적인 의견을 이번 호 <세카이>에 실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읽어보십시오.

그렇더라도 개헌 반대 운동을 그만두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기본법을 잊지 말자, 죽어도 잊지 말자는 주장을 계속하며 죽어갈 생각입니다만 절대로 낙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에는 양심적으로 헌법에 반대하고 있으니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실 문제로서 헌법에 대하여 이러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변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양심적이라고 찬사를 보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운동을 중지할 생각은 없지만, 칭찬을 듣고 기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암울한 기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일본인이 3천명이나 있고, 그에 격려를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인간의 모순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일본인을 적으로 돌린 채 아시아의 사람들을 아군으로 삼아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저는 사람을 우리 편이라든가 적이라고 구분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적, 아군이 아니라 아시아 안에서 진정 적극적으로 아시아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에서—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조금이라도 아시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 고민해보려는 기운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에 문제화되고 있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가자

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수상이 태연히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행동은 그만두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말입니다. 상황이 매우 비관적이고 변화가 없을지라도 어떻게든 진전시켜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싶습니다.

▶▶ 질문 16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재일교포 2세입니다. 아버지가 3세 때 일본으로 건너간 후 지금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조총련이 운영하는 민족학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우리말을 배우기 위하여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조선인’으로서의 입지가 강하여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유학 후 자신이 성장한 나라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머리로는 일본을 비판해도 실제로는 역시 태어나서 성장한 곳, 즉 일본의 정신과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사회에 부정적인 감정을 품었고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의 좋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컨대, 저는 지금 모 저널리스트의 요청을 받아 한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일교포 중 유일하게 종군위안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송신도 할머니의 인생을 다룬 인터뷰, 다큐멘터리의 번역 작업 중에서 다시 한 번 재일교포로서의 입장을 확인하였고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에 유학하며 한국에 대하여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죄 없는 일본인들에게 무턱대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시비를 걸며 과장된 애국심을 드러내는 한국인을 보면 무척 안타깝고 조금 더 지적인 대응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에 선생님이 제기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다의적인 의미’의 ‘애매함(ambiguous)’이라는 말을 써서 저의 입장을 정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껏 ‘애매함’을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선생님의 <애매한 일본의 나(あいまいな日本の私)>라는 강연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린 부분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다수 거주하는 재일교포의 이와 같은 ‘애매한 일본의 재일교포’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재일교포가 애매하게 그 입장을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위치 즉 완전한 일본인이거나 완전한 한국인으로서 귀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질문 17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지 한국인이지만 일본어 공부 등을 위하여 현재 재일교포학생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일교포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잠시 공부할 때에 일본인들이 재일교포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류로 인하여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재일교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한국이 식민통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 일본과의 관계를 열었지만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과 제도에는 그들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야 했던 시절의 어려움이 일부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계 학교의 학적 인정 문제와 취업·진학을 비롯한 사회 차별 문제, 그리고 일본 내 인식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 재일한국인이 일본에서 살게 된 계기와 그들이 보통의 이민 외국인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에서도 교육적·제도적 차원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일본 내 재일한국인 수나 이후 세대를 고려한다면 이는 일본 내부의 사회 운영적 문제로 조명할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력 인정 등의 문제는 어느 국가든 교육을 통하여 국가 가치관에 적합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조건 우호적인 자세로 일본계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수월하지 않은 일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식민통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이자 현지 일본인이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한다고 생

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질문자들은 이미 자신이 취할 태도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답변보다는 이와 같은 제3의 입장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 유효할 듯합니다. 유익한 문헌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군요. 에드워드 사이드의 <Reflection on Exile>이란 책입니다.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인터넷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미국의페이퍼백을 2천 엔 정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고국상실에 관한 성찰(故国喪失についての省察)>이라는 제목을 달고 2권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미스즈 서방(みすず書房)에서 매우 충실한 번역으로 출간되었으니, 이 책을 두 분이 읽어보기를 희망합니다. 두 분이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두 분 모두 사이드의 <Reflection on Exile>이란 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사이드가 기록한 비정치적인 문장을 수집한 책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이집트에서 성장했고 15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하버드를 거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극히 불확실한 자리에 있는 인간, 곧 'Exile'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에서 추방되어 갈 곳을 잃어버린 인간. 예를 들면 전전에 강제 연행을 당한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렇게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상실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그것이 오로지 마이너스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은 중심이 아닌 모퉁이, 경계와도 같은 자리에 있지만 경계인으로서 중심을 향한 승부에 임하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으로서 사회 비판적인 입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이드의 의견이고, 그는 그것을 일생동안 관찰했습니다. 재일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한국인이라는 입장에서 일본으로 옮겨온 이상,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동하게 된 이른바 'Exile', 고국을 상실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이너스적 입장이 아닙니다. 사이드는 언제나 불확실한 입장에 처한 인간으로서 'Exile'로서 자신을 확립시켜 나가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일한국인 문제, 정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권력에 목살당하고 말았던 사람들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젊은이들이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금후 살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두 분 모두 사이드란 사람이 얼마나 불확실한 자리에 처한 인간으로서, 'Exile'로서의 자신을 고민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이드는 'Exile'이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이동하게 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불안하고 흔들거리는 장소에 있는 인간, 그런 인간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손을 뻗게 됩니다. 불확실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확실한 것을 찾아내려 합니다. 무언가를 갈구하며 손을 뻗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인간을 'Exile'이라 한다고 사이드는 말합니다. 그런 내용을 읽어보도록 권합니다.

또 한 가지는 노경에 접어든 예술가의 특별한 스타일에 대하여 분석한 <On Late Style>이라는 책으로, 사이드는 죽기 전까지 완성하지 못했지만 유고를 정리하여 이번에 미국(Pantheon Books)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 글을 쓰는 동안 저는 사이드 씨와 십 수 년 동안 깊이 교제해 왔습니다.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예술론이므로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습디만, 서문을 쓴 마이클 우드라는 사람이 그 마무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Exile'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젊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정도의 연령이 되면 적극적이고 뒤고 없습니다만 여러분은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5년이나 6년 정도는 실패를 경험해도 괜찮으니까요.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고국상실에 관한 성찰(Reflection on Exile)>이란 책은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 마무리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며 모두들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고, 그 문제를 제게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저 스스로도 이곳에 참석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작 전에는 어서 맥주를 나누는 자리로 가고 싶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맥주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